

사랑을 나누는 환영

환영 --- 한 해 동안 감사의 고백을 간단히 나눠 봅시다 --- 다 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께

방안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찬양

찬송가 ----- 419장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다 함께

1.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후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꽃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양 ----- 행복 ----- 다 함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랴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랴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랴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랴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랴오

기도 ----- 가족 중

사랑하는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올 한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
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에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쁨의 날에는 감사함으로 어려운 날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는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절기에 가족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된 믿음이 계승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정)에 선포된 말씀 적용

성경봉독 ----- 시편 30:4-6 ----- 다 함께

- 4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설교 -----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 ----- 인도자

한가위를 맞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
권적 섭리를 기억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사시로, 구원
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언약 안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거룩을 회복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
30:4).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이자 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은 가정을 통
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
들려 모락하지만, 우리는 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일상이 구별되었는지 점
검해야 합니다.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가정)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
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2)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4절 하반절)

다윗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의 찬송을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자
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위에 서
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역시 이 신뢰를
바탕으로 감사하며, 우리(가정)가 받은 은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아가는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3) 영혼의 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5-6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다윗은 고달픈 인생과 사명 감당
의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침의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가정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참된 쉼터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회복을 통해 새로운
날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기도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시 30:6)는 안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감사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환경의 풍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굳게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육체적 쉼터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적으로 흘러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비록 '저녁의 울음'과 같은 일상의 환난과 영적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때 다가올 '아침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우리 가정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델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 하나님이 나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약속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합심기도 ----- 다함께

- 개인의 기도제목 한 가지씩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감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영적 우선순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가운데에 앉히고, 어른들이 둘러서 축복기도 합니다.)

모두 함께 사역에 헌신

결단과 헌신 ----- 다함께

-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섬겨야 할 분들이나 (이웃, 전도 대상자, 선교자 등)들을 선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을 계획합니다.
-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음식을 나눕니다.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파송

찬송가 -----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다함께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X2)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X2)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X2) 아멘

축복기도 ----- 가장 또는 가정의 어른의 축복기도 ----- 대표자

주기도문 ----- 다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준비

1.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사랑 • 방 • 교 • 회 • 모 • 임 순서로 진행됩니다.
2. 가족들이 그 앞에 둘러앉고 예배 인도자는 상 옆에 앉거나 서서 인도합니다.
3. 본 예배 안내지의 순서에 따라 가족 중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4. 기도나 성경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5.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고 지방도 쓰지 않으며, 음식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2026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 예배

